“光銀살리기 지역민 열망… 지역자본에 우선협상권 줘야”

‘광주은행 지역환원 간담회’서 잇따라 주장

“타지역 금융기관 인수땐 지역경제 활성화 퇴보 공개경쟁 입찰은 안돼”

신제윤 금융위원장 “지역민 위한 인수 중요 매각 3원칙 따를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 방침과 관련, “지역민의 인수냐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인수가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지역민이나 지역 출신이 (광주은행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또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매각 방식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분리매각 결정 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26일 우리은행 매각 방침 발표 때는 분리매각 원칙만 밝힐 것”이라고 밝혀 광주은행에 대한 구체적 매각 방식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역은행 살리기 위해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던 지역민의 정서와 지역발전을 고려, 지역자본에 우선협상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선한 강기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간담회는 광주은행 지역 환원의 의지와 뜻을 모은 것”이라며 “광주은행을 살리기 위한 지역민의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매각의 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았다.

참석자들은 이어 지역 환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임내현 의원은 “광주은행이 타지역 금융기관에 인수될 경우 지역기업 지원에 애로가 생기고 지역공헌이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자구노력뿐 아니라 지역민의 노력으로 광주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후) 지속적 성장을 해온 만큼 지역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3대 원칙은 주지의 사실이나 어쩐지 중앙 논리에 편중된 것 같다”며 “정부는 강자가 계속 강해지도록, 약자는 계속 약해지도록 편 가르지 않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이번 분리 매각에도 정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서 지방경제의 피폐가 더 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동안 지역 상공인들은 광주은행을 살리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훨씬 비싼 이자를 내고도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지역 열망을 감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역에 우선협상권·가산점 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매각 3원칙이 광주은행 향토은행화와 배치되지 않는다”며 “지역민의 애정이 없으면 민영화도 어렵고 이후 발전도 더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용섭 의원은 “분리매각은 향토은행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인데 최고가(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은 이명박정부의 방침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현행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법 개정을 할 것이니 지역에 우선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채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매각가 산정시 지역민이 본 1000억원 이상의 손실분을 고려해야 하고 매각 과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CEO의 빠른 선임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3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은 광주은행을 지역자본에 우선협상권을 줘 연고지역으로 환원해주는 방법뿐”이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추진위는 또 “향후 광주은행을 ‘지역상공인 연합체’로 구성된 지역자본이 인수하게 된다면 ‘소유구조의 철저한 분산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견제와 감시를 통한 투명한 윤리경영의 확립’ 등을 통해 광주은행을 초우량 지방은행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보다는 광주전남지역 상공인 연합체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 광주은행장 공모로 선임

행추위, 28일까지 후보 접수 내달 3일께 내정

차기 광주은행장이 공모방식으로 선임됨에 따라 빠르면 7월 3일께 내정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첫 광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차기 광주은행장을 공모 방식으로 인선키고 했다.

우리금융은 25일 공모를 내고 오는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은 후 7월 1일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빠르면 7월 3일께 최종 후보자 1명을 내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달 25일 전후로 주주총회를 열고 행장을 정식 선임할 예정이다.

행추위가 공모 방식을 채택한 것은 그동안 광주은행 노조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내부승진 출신을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광주은행의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서는 지역정서와 광주은행 사정에 정통한 내부승진 행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분위가 형성되고 있어 광주은행이 문을 연 이후 45년만에 첫 내부승진 은행장이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은행 차기 행장 유력 후보로는 조억헌 광주은행 지역발전본부장(부행장)과 최승남 전 우리금융 부사장의 2파전 양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승희 전 우리금융 전무와 변정섭 전 광은비즈니스 대표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中 증시 폭락에… 코스피 1800선 붕괴

11개월만에 최저치

미국의 ‘버냉키 쇼크’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중국발 충격파가 다시 전해지면서 코스피 1,800선이 무너졌다.

중국 증시가 오후 들어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우려로 급락하자 코스피가 장 마감을 1분 앞두고 곤두박질쳤다. 중국 증시는 5% 넘게 폭락했고 상하이종합지수는 2,000선을 내줬다. 국내 채권 금리는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원·달러 환율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82p(1.31%) 하락한 1,799.01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작년 7월 26일(1,782.4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버냉키 쇼크가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중국 증시가 급락하자 코스피도 큰 충격을 받았다.

코스닥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 큰 충격으로 전 거래일보다 12.24포인트(2.35%) 하락해 508.65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2월 13일(507.99%) 이후 4개월여만에 가장 낮다. 악재가 겹치면서 채권 금리는 상승해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8%p 상승한 연 12%를 나타냈다. 이는 연중 최고치이자 작년 7월 11일(3.21%)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0.11%p, 0.10%p 오른 3.43%와 3.68%를 보여 연중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장기물인 20년물과 30년물은 0.13%p, 0.11%p 각각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중국발 시장 충격에 장 막판 크게 올라 1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전 거래일보다 6.7원 상승한 달러당 1,161.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799.01 (-23.82)	▼ 508.65 (-12.24)	▲ 3.12 (+0.08)	▲ 1161.40원(+6.70)

코스피 적신호 24일 코스피가 장 막판 1,800선이 무너진 채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3.82p(1.31%) 내린 1,799.01에 마감됐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입구에 켜진 주황색 등 뒤로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중개업자 10명중 4명 “하반기도 집값 떨어져”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올 하반기에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내놓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따르면 전국 회원 중개업소 961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9%(375명)가 올해 하반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답변했다.

응답자의 50.9%(489명)은 주택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고,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중개업자는 10.1%(97명)에 불과했다. 전세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응답이 45.8%(440명)로 가장 높았고, 45.9%(441명)는 보합세를 전망했다.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응답자의 36.8%(354명)가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여부를 꼽았다. /임동률기자 exian@

“창업 아이템 구경 오세요”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창업 아이템 구경하러 오세요.”

호남 유일의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엑스퍼트가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3 광주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는 프랜차이즈창업관과 창업지원관, 벤처창업관, 뉴비지니스관, 재테크부동산관 등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및 창업 관련회사와 유망 아이템 회사 등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 설명회 등을 갖는다.

참여업체는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보노와 맘스아이키즈, 아트 레이저 뿐만 아니라 전북 프랜차이즈 회원사, 치킨매니아, 허닭, 놀부, 롯데리아, 나뚜루팝, 달콤커피, 디초콜릿커피, OB골든펍, 소보루FC 등 외식과 웰빙, 기타 창업아이템 관련 70여 개 업체, 140여 개 부스가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신생 업체와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창업에 대해 고민하던 직장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엑스퍼트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창업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창업 준비자에게는 창업 지원, 정책 등 정보제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과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광주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 사무국(www.fitex.kr)이나 전화(062-236-0080)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